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예비자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3-8/15  
(금요일 6시 Parish Center, 토요일 2시 사제관)
- 세례대상자 찰고 및 예절연습:  
8월 15일(토) 오후 2시, Parish Center
- 세례식: 8월 16일 주일 미사 중

###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첫영성체 찰고: 8월 22일 토요일
- 첫영성체: 8월 23일 주일 미사 중

### ◆ 2/4분기(4-6월) 재정결산 교구 보고를 위한 재무위원회의

- 일시: 7월 25일(토) 저녁 7:30
- 장소: 사제관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io

### ◆ 정하상 구역 모임

- 일시: 7월 25일(토) 저녁 7시
- 장소: 한석철 베드로 형제님 덕  
7814 Wiltshire Dr. Dublin, OH 43016  
(614)873-2526

### ◆ 친교 준비 봉사자

- 7월 19일: 문승태 7월 26일: 김한식

### ◆ 7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3,15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무금: 윤경수 연도흠 김한식 이진학 고상식 최창배 정동완 김상욱 이수정 이도근 김명호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62.00
교 무 금	\$1,410.00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16주일 July 19, 2009



<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

렘브란트(1606-1669), 동판화, 렘브란트하우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3,1-6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 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에페소서 2,13-18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6,30-34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230단 2명	21,979단 149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30단 2명	2/22/04 -7/12/09 (281주)

총누계: 216,467단 12,783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7월19일	7월26일
해설자	박귀영	김오경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증거자의 모후	십자가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 입당: 448
- ♪ 봉헌: 511
- ♪ 성체: 504 506
- ♪ 파견: 453

## 생명의 말씀

###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정 그들에게서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여겨져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서도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피로를 어루만져 주시며 동시에 군중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정녕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도움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또 굳이 도움을 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살면 그만이지 뭐, 안그래?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지.’

주변에서 가끔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이기적인 사고에 폭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 은연 중 그런 식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네. 그러니 자네 걱정이나 하며 살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혼자 발버둥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지구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나서서 될 일이 뭐 있을까? 그럴 바에야 나만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지. 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오래 전부터 이미 길들여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보려는 그런 식의 알팍한 논리야말로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눈길을 떼지 않으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믿는 사람이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해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